

아시아나항공 인수 '5파전' ... 연내 매각

애경·미래에셋·KCGI·사모펀드 2곳 등 입찰 참여 SK·CJ·GS·한화 등 주요 그룹 인수전 참여 안해

애경·미래에셋·KCGI 등 3곳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 들었다. 또 사모펀드 2곳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인수전은 '5파전' 양상이다.

"제2 국적항공사가 매물로 나왔다"며 흥행을 점친 시장 일각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적표다. 하지만 불안한 재무구조와 최근 항공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3일 금호산업과 매각 중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예비입찰을 마감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잠재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예비입찰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금호산업과 CS증권이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구하고 있어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은 애경그룹과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사모펀드 KCGI 등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 사모펀드 2곳도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애경그룹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입찰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예비입찰 마감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애경 관계자는 "다음 달 추려지는 인수 협상 대상 후보군(소트리스트)에는 포함돼 실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경은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통매각' 되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애경이 이를 모두 가져올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은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 부분에서 아시아나 인수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2대 주주로 이름을 알린 사모펀드 KCGI도 아시아나 예비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KCGI는 FI로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업을 SI로 삼아 컨소시엄을 구성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상세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경



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서 남다른 아이디어로 항공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GS를 비롯해 SK, CJ, 한화 등 주요 대기업 그룹이 아시아나 인수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들은 인수전에 뛰어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은 예비입찰을 위한 투자설명서(IM)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CJ 역시 처음부터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SK도 이날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 2곳이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컨소시엄에 이들 기업이 SI로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사모펀드 2곳이 어떤 기업과 손잡고 아시아나 인수를 검토하는지 주목된다. 금호산업과 CS증권 측이 입찰 참여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수전에 참가한 기업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금호산업과 CS증권은 약 1주일 안에 소트리스트를 추리고 1개월가량 실사를 거쳐 우선인수협상 대상자 선정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매각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은 구주 인수대금 약 4500억원에 신주 발행액, 경영권 프리미엄(20~30%)까지 없으면 1조원 이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회사까지 '통매각 방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매각 가격은 1조5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5.69 (-3.50)	↓ 금리(국고채 3년) 1.23 (-0.01)
↑ 코스닥 620.02 (+0.21)	↑ 환율(USD) 1215.60 (+4.80)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업무협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한상문)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나성화)은 3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회의실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제공>

삼성·현대차그룹, 협력사 자금 운용 도움 추석 전 납품대금 각 1조4000억 조기 집행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삼성과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추석 전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받게 됐다.

3일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두 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각 1조 40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엔 삼성전자·삼성전기·제일기획 등 10개 계열사가 통상 예정일보다 1~2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매년 설과 추석 연휴 등에 실시되는 물품대금 조기 지급은 협력사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다.

삼성은 지난해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통해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총 4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초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협력사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

삼성은 전국에 있는 각 계열사 임직원이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때 자매마을의 농·축·수산물을 사도록 해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

현대차그룹도 납품대금 1조4181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연휴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 회사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이들 4개사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장 10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추석 이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익산국토청, 서해안벨트 관광명소로 키운다

전남·4개 시군과 맞선

익산국토청이 영광 칠산대교와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연계한 서해안 관광루트를 세계 관광명소로 키우는 데 앞장선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신안군청에서 전남 서해안에 산재한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과 해상교량을 활용한 관광 해안루트 개발에 나섰다. 회의는 전남도와 서해안 4개 시·군(목포시,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칠산대교와 올해 초 개통한 천사대교, 6일 개통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전남 서해안의 비교유위 자산인 섬·해양 경관을 묶는 관광루트를 세계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 기관은 지속성장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전남 서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철홍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전남 서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외국인투자기업 없는 경제자유구역

광양 315개사 중 29곳 불과... 개발률 67.8% 그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 실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315개사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9.2%인 29곳에 불과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산업통상사

원부로부터 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내 등록된 회사법인인 2759개사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11.5%인 316개사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7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남 광양·순천·여수와 경남 하동에 걸쳐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지정 이후 현재 개발률이 67.8%다. 기업 유치 실적은 전체 회사법인인 315개사 가운데 국내기업이 286개사로 90.8%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9.2%인 29개사에 불과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광주역, 연씨백화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속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